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훌륭한 생각들 [빌립보서 4:8-9]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8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어떤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들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만하며, 칭찬할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찬양한 만한 것이 있든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우리의 삶은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들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35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4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태복음 12:34-35). "2 주께서 나의 앓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시편 139:2). "9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찌어다 여호와께서는 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역대상 28:9).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아시며 거룩하지 않거나 순결하지 않은 모든 생각들을 싫어하십니다. "26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잠언 15:26). 창세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5).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결국엔 악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노예 삼을 것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겠습니다. 복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생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위대한 역할 중 하나는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4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5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고린도후서 10:4-5). "7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7). 회개란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돌아온 탕자.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2).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17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시편 139:17). 그러면 우리의 생각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집니다. 우리의 생각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율법에, 그분께 순종하고 경배 드리는 법에 집중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6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16). 우리는 매일 새롭게 변화되어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8:5-7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5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피합니다.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생각들을 피합니다. 그리스도의 용서가 적용되는 것이 최고의 원동력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만하며, 칭찬할만하며, 덕이 있

고, 찬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무엇이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이시니 그 외에 것은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그 분의 성품이 진실하시고 그 분의 내면도 진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분과 같이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서 우리의 구원자 주님이 되셨다는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사랑할 만합니다.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사회에 공개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자비로운 태도를 보이는 것이 사랑스러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일들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이든 훌륭하고 찬양할 만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속한 그 어떤 것이든, 우리의 생각을 채우는 그 어떤 것이든 훌륭하고 찬양할 만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생각들로 찬양 받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증인 된 사람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어야 합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또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려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2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21). *"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13). *"3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8).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울 때,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형상 자체로 채울 때, 하나님 그 분께서 친히 우리 삶의 평화의 원천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이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